

##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대(對)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전용덕\*

### 〈목 차〉

- I. 서론
- II.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略史)
- III.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 IV. 결론

### 한글초록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비교한 것이다. 두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경제이론들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르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보다 실재론적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그 결과 경제이론들 등의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제어(key words):**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실재론적 전제들, 경제이론들, 방법론, 인식론

---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email: ydjeon@daegu.ac.kr.

## I. 서론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강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이 번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근본적으로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는 경기변동 현상을 설명할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이 번 경제위기가 궁극적으로는 화폐의 과다한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부 연구자는 2008년 경제위기를 이미 몇 년 전에 예측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금융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설명해야 할 -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과거에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보통 사람들을 포함한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학계에서는 여전히 소수임에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학문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 간에 간헐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지지자들이 많다는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쉽게 자신의 패러다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신고전학파, 특히 케인스 경제학의 신봉자는 이번 경제위기 시에 경제학자가 아니면서 경제 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읽어볼 것을 제안했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 내용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연구자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비록 그 수가 적지만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학문이나 이론의 진위 여부는 지지자의 숫자로 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너무 달라서 진위를 결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두 경제학은 물과 기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다르다. 비록 두 경제학이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전혀 다른 체제인 두 학파의 경제학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논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고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학문 세계나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학파의 경제학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좋은 경제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좋은 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강의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육에서 좋은 경제학은 설명력을 높여 현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면 이번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경제학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문명의 성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공황 이후에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경제학인 고전학파의 경제학에 접목되면서 경제위기는 대규모화하고 반복적이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학문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경제학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학이 의존하고 있는 가정, 전제, 기초 등이 얼마나 ‘실재적’(realistic)인가 하는 것이다.<sup>1)2)</sup> Friedman(1953)은 예측력을 기준으로 비실재적인(unrealistic) 가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riedman이 주장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pan-physicalism)는 경제학을 위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자연과학을 위한 방법론이다. 신고전학파는 자연과학을 위한

1) 영어 real, realistic, realism, realist, reality 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관념’의 반대로서 ‘실재’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의 반대로서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real과 관련한 파생어들은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철학에서 인식론과 관련한 의미는 전자이기 때문이다.

2) 오스트리아 학파의 실재론(realism)적 전통은 멩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초기부터 내려온 것이다. Hülsmann (2007), 135쪽 참조.

방법론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방법론과 인식론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논평을 제Ⅲ절에서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룬다. 제Ⅲ절에서 두 학파의 경제학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두 학파 경제학의 가정, 전제, 기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두 경제학의 이론적 차이와 방법론과 인식론의 차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가 논문이라는 형태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제Ⅳ절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내린다.

## II.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略史)<sup>3)4)</sup>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멩거를 시조로 하고 있지만 미제스가 사실상 오스트리아 학파의 설립자(founder)라고 불러도 무방하다.<sup>5)</sup> 미제스는 멩거, 뵘-바베르크 등의 가르침을 기초로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인간행동학(praxeology)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인간 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기초를 처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sup>6)</sup> 그리고 오늘날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는 주로 미제스의 저작들을 토대로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을

3)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에 대한 필자의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 생소한 연구자들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할 필요는 있지만 이 글의 목적상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간략한 스케치 정도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4) 국내에서도 오스트리아 학파를 추종하는 전문가들이 소수이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목적상 그들을 소개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자유와 시장'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5) 미제스의 일대기를 다룬 최근의 주요 저작으로는 Hülsmann(2007)이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미제스를 설립자로 하는 학파를 그 이전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6) 멩거의 뒤를 뵘-바베르크가 이었다. 뵘-바베르크의 뒤를 이은 연구자가 비저(Friedrich von Wieser)이다. 그러나 그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과 생산과 분배를 분리함으로써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 그 결과 오늘날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말할 때 비저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제스가 쓴 대작 *Human Action*에서도 비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만 두 번 있다. Mises(1996), Hülsmann(2007) 참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말할 때는 미세스 자신과 그 후학이 학파의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하겠고 바로 그 이유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역사가 길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사상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독립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사상적 위치에 대한 최근의 서적으로는 Schulak and Unterköfler(2011)가 있고 논문으로는 Hülsmann(1999)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전통을 잇는 연구자로는 Menger(1950)를 시조로 하여, Böhm-Bawerk(1959), Mises(1980, 1996, 2007, 2010), Hayek(1931, 1937, 1979), Rothbard(1993, 1997a, 1997b), Kirzner(1966, 1973), Hoppe(1989, 1993) 등이 있다.<sup>7)</sup> 앞에서 나열한 참고문헌은 각 연구자의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Hoppe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sup>8)</sup>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전학과 경제학과 달리 주관주의(subjectivism)를 토대로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사상사에서 멩거, 제본스, 왈라스 등이 처음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멩거와 달리 경제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본스와 왈라스는 주관주의를 기초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않았다. 그러나 멩거는 비록 많은 저작을 남기지 않았지만 효용의 주관성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러한 전통은 뵘-바베르크 등으로

7) Menger, Böhm-Bawerk, Mises, Hayek 등은 독일어 저작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8) 다만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하여 각 분야의 주요 참고문헌을 나열해 본다. 경제이론 일반은 Mises (1996), Rothbard(1993), Reisman(1998), 독점과 가격 이론은 Selgin(1988a), Block(1990), Salin(1996a, b), Armentano(1999), 비교경제제도는 Hoppe(1989), Salerno(1990), 복지이론은 Sennholz(1987), Thornton (1991), Cordato(1992), Herbener(1997), 산업조직이론은 Klein(1996), 화폐와 금융은 White(1989), Selgin (1988b), Hoppe(1994), Huerta de Soto(2006), Salerno(2010), 경제사는 Rothbard(1975, 2005), 공공재이론은 Hummel(1990), Holcombe(1997), Campan(1999), DiLorenzo(1988), 기업가 이론은 Kirzner(1973, 1992), 사유화 이론은 Hoppe(1991), Herbener(1992), Selgin(1996), 방법론은 Mises(1996, 2003, 2006, 2007), Rothbard(1997a), Hoppe(2007), 사상사는 Rothbard(1997a, 1997b), 법학(도덕과학)은 Rothbard(2002) 등이다. 참고로 앞에서 나열한 참고문헌은 Hülsmann(1999)의 18쪽에 나와 있는 참고문헌에 1999년 이후의 연구자들의 문헌을 필자가 일부 선정하여 포함한 것이다.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제스는 주관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1912년에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1922년에 *Socialism*이라는 걸작을 저술했다. 미제스는 2차 대전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1949년에 철저한 주관주의에 입각하여 인간 행동학과 경제학을 완성한 *Human Action*을 출판했다. 앞의 두 저작은 말할 것도 없고 *Human Action*은 그 이후 몇 십 년 동안 미국에서 오스트리아 학파가 부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제스는 1957년에 경제학의 방법론과 역사학 원리를 다룬 *Theory and History*를 출간했다. 미제스는 앞에서 제시한 4대 걸작을 제외하고도 많은 서적과 논문을 남겼다. 이러한 저술 활동을 통해 미제스는 주관주의 전통을 사실상 잃어버린 신고전학파와 완전히 결별하고 주관주의에 철저한 경제학인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을 완성했다.

미제스의 제자였던 Rothbard(1992)는 그 때까지 오스트리아 학파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극단적 주관주의를 신봉하는 집단, 하이에크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들, 미제스적 전통을 잇는 학자들을 말한다. 현재는 극단적 주관주의를 추구한 학자들은 더 이상 학맥이 유지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두 집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미제스적 전통을 잇는 연구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sup>9)</sup> 다만 필자가 미국과 전 세계 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멩거에서 뵘-바베르크, 그리고 미제스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오스트리아 학파적 요소들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변경함으로써 후학들이 판단하건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에서 제외된 연구자들도 상당수 있다. 슈페터, 하벌리, 모겐스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이 활동을 했던 당시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신봉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도 이들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으로 꼽지 않기 때문이다.

9) 오스트리아 학파 내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Hayek의 비중은 작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내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고 Hoppe는 지적했다. 학문적 공헌이 없다는 이유이다. 심지어 Rothbard와 같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연구자도 경제이론에 관한 한 독점이론을 제외하면 자신의 학문적 공헌은 없다고 자평했다. 왜냐하면 경제이론은 모두 미제스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하이에크적 전통을 이어가는 연구자가 적지 않지만 미제스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왜소하다. 그런 이유와 다른 이유가 겹쳐져서 하이에크의 연구를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Ⅲ.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몇 가지 점에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명백히 다르다. 그렇지만 이 다른 몇 가지가 가정 또는 전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경제학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 결과 두 경제학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논문의 크기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경제학의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차이만을 다루고자 한다.<sup>10)</sup>

#### 1. 인간행동학적 분석 대 심리학적 분석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인간행동학적 분석’ (praxeological analysis)은 주류경제학의 ‘심리학적 분석’ (psychological analysis)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행동 이론 또는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응용 심리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고 주류경제학은 응용 심리학의 일부라고 하는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 개념’ (concept of action)이 중요하다. 행동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행동 개념과 밀접히 연결된 개념인 가치, 부, 교환, 가격, 비용 등의 개념도 파악 가능하다고 Mises(2003)는 설명한다. 미제스는 가치평가(valuing), 가치와 중요성의 척도, 희소성과 풍부함,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이윤과 손실 등과 같은 개념도 행동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행동 개념으로부터 앞에서 열거한 개념들을 유도하고 그 개념들 간의 필연적인 관계도 유도하는 것이 경제학의 일차적인 임무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행동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두 학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을 또한 스스로 선택한다.

10) 이 부분은 Mises(1996, 2006, 2007), Rothbard(1992), Hülsmann(1999), Salerno(2010), Caplan(1999) 등을 주로 참조.

이 점을 Hülsmann(1999, p. 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그들[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자들, 역자주]은 인간 존재들이 선택을 하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을 이용한다고 강조한다.” 주류경제학자들도 인간은 스스로 목적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도 또한 선택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현실에서 기업가는 금전적 이윤의 극대화만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적 이윤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자선을 하면서 금전적 이윤의 일부를 희생하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심적 이윤’(psychic profit)의 극대화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는 심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대신에 주류경제학은 ‘금전적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기업가에 따라 심적 이윤의 극대화가 곧 금전적 이윤 극대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가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류경제학은 금전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가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실재적인’(unreal)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신고전학파는 오스트리아 학파보다 비실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실의 기업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업가가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두 학파가 다르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겠지만 두 학파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형(types of explanations)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인간은 행동의 순간에 선택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채택한다.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는 점”이 ‘행동의 기초 공리’(fundamental axiom of action)이다. 인간행동학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동의 기초 공리에 두 가지 ‘보조적인 전제’(subsidiary postulates)가 추가되어야 한다. 두 가지란 인간과 자연자원은 다양하다는 것과 여가(leisure)가 소비재(consumers' goods)라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행동의 기초 공리와 두 가지 보조 전제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인간행동학과 경제이론을 연역적 방법에 의해 이끌어낸다. 행동의 기초 공리에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이 출발한다는 점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다른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행동의 내부에(within action) 있는 것’으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이란 ‘행동의 목적’ 또는 ‘포기한 선택지’(forgone alternatives)를 말한다. 미제스는 행동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론’ (teleology)이다.<sup>11)</sup> 최근에 Hülsmann(2003b)은 인간이 행동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선택지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데 그 포기한 선택지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된 관계’ (counterfactual relation)로 행동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2)</sup> 요약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은 행동은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는’ (self-determining)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행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간행동학이라고 하고 경제학은 지금까지 인간행동학이 가장 잘 발달된 부분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을 주어진 환경 또는 행동의 조건의 ‘필연적인 결과’ (sequel, corollary)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신고전학파는 행동을 인간의 감정 또는 만족감이라는 심리 상태로 설명하는데, 인간의 감정 또는 만족감은 ‘행동의 조건들’ (conditions of action) 또는 행동의 환경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른 관측가능하면서도 내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들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과 선택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고통과 기쁨이라는 감정 또는 만족감과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목격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이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관측 가능한(observable) 행동-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행동을 말함-을 행동의 조건들, 즉 ‘욕구-만족’ 의 정도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행동의 조건들은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외부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을 Hülsmann(1999)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요약컨대, 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 역자 주]은 한 쪽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그 행동이 신고전학파의 소비자 이론에 의해 연

11)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1996, 2006, 2007) 참조.

12) Machaj(2012)는 Hülsmann(2003b)이 주장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된 관계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되고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3)</sup> 다른 말로 하면, 신고전학파는 인간의 행동 그 자체와 행동의 조건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 점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문제는 행동과 행동의 조건들 또는 심리적 현상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이론이라는 것이다. Mises(1990)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다른 개인들은 동일한 사물들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개인이라도 조건들이 변하면 가치평가는 변한다.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개인들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들을 결정할 수 없다.”<sup>14)</sup>

Rothbard(1997a)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동일한 조건들일 때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다.<sup>15)</sup> 신고전학파의 심리학적 접근법이 틀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접근법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접근법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경제학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연구 방법론과 인식론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더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방법론 또는 경제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간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행동의 이론, 즉 인간행동학이라면, 주류경제학은 응용심리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두 학파의 경제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이후의 분석과 설명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학파의 경제이론들 일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시사점이란 두 경제학에서 포함된 경제이론들이 상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경제학의 이론들이 유사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제 이론들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엄밀

13) Hülsmann(1999), 5쪽 인용.

14) Mises(1990), 6쪽 인용.

15) Rothbard(1997a),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참조.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 2. 합목적성 대 합리성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 (rational) 인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영어 rational이라는 말의 의미는 합리적이 아니라 ‘합목적적’이라는 의미이다.<sup>16)</sup>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다. 이 때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은 인간의 행동 또는 행위가 연구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생물학적 자극에 크게 휘둘리는 어린이 등을 제외한다. 물론 어린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간 등도 때로는 성숙한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논리 전개의 편의상 그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적인 성인이지만 술을 마시거나 정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성인의 행동도 우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여기에서 인간이란 큰 정신적 장애-유전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는-가 없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인간을 말한다. 요약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 인간이란 이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실재의(real) 인간을 말한다.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라도 이성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즉 이성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의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ideal)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실재적’ (unreal)이다. 그러므로 비실재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지만 또한 인간은 감정, 유행, 모방,

16) 영어 rationality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응용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전용덕(2006)을 참조.

타인의 권유 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물론 인간이 감정, 유행, 모방, 타인의 권유 등에 따라 행동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인간은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면 차분하게 생각할 때보다 목표에 대해서는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지불해야 할 대가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때로는 인간은 상당히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적 혁명이 일어날 때의 인간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혁명이 발발하고 진행될 때의 인간들의 행동과 혁명 직전의 인간들의 행동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앞에서 설명한 경향만이 가능하다. 혁명을 전후하여 인간은 비용에 비하여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다르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sup>17)</sup>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심사숙고해서 그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맛있다고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지 않는다. 사람은 욕정에 따라 모든 예쁜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가 미워하는 모든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은 즉흥적이고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일정한 가치 척도에 따라 그의 욕망과 욕구를 배열하고 선택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한 마디로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동물 사회학, 사회 생물학 등과 같은 학문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동물이 사회를 이룬다는 주장이나 설명은 ‘사회’ 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란 독립된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동물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은 개체들 간의 교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물은 사회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동물 사회학 등은 기본 개념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구분해야 한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의식적인 행위’ (conscious behavior)이지 ‘무의식적인 활동’ (unconscious activity)은 아니다. 물론 두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두 경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은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이다.<sup>18)</sup> 이 점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도 동일하다.

17) 인간의 행동이 동물의 행동과 다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1996), 제1장 참조.

18) Mises(2003), 24쪽 참조.

### 3. 현시 선호 원리 대 무차별 원리

오스트리아 학파는 신고전학파가 수요 곡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차별’ (indifference)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인간은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한다. 경제학과 같이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에서 이 행동이 ‘설명되어야 할 사실’ (fact to be explained)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가정하자. 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관측 또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관측과 철수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했을 가능한 다른 행동(possible alternative actions)을 연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다른 선택지, 즉 녹차보다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신고전학파의 무차별 개념을 도입하여 철수가 커피와 녹차에 대해서 무차별하다고 가정하면 커피를 마시는 행동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undeniable fact)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현상인 무차별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차별이론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뷔리던의 당나귀 (Buridan's ass)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sup>20)</sup> 뷔리던의 당나귀 사례는 두 개의 건조 묶음 또는 두 개의 우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고 있는 당나귀의 우화이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매력적인 두 묶음의 건조 나 두 개의 우물을 앞에 두고 당나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그 결과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무차별이론가들(indifference theorists)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세 번째 선택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굶는 것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분명히 가치 순위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당나귀는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쪽보다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과 완벽히 동일하게 매력적이라면 그 당나귀는 동전던지기나 같은 방법으로 어느 한 쪽을 결정할 수도 있다.

Rothbard(1993, pp. 265, 267)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무차별

19) 미제스는 만약 개인이 두 사물이나 조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무차별하다는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동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Mises(2007), 24쪽 참조.

20)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Rothbard(1993), 제4장을 참조.

개념의 결정적 오류는 ‘무차별’이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경제학이나 어떤 다른 인간행위학적 과학에서 무차별 개념이 할 역할은 없다. (중략) 다시 한 번 선택을 통해 표출되는 선호에 관심이 있고, 선호의 심리학에는 관심이 없다.”<sup>21)</sup>

무차별 개념을 옹호하는 무차별이론가들이 제시한 뷰리던의 당나귀에 대한 Rothbard(1993)의 비판에 대하여 필자가 한 가지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당나귀마저도 무차별로 인하여 두 개의 우물 또는 두 묶음의 건초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라스바드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지와 이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러므로 뷰리던의 당나귀는 무차별 현상을 설명하거나 반박하는 예로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무차별이론가들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한 예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반박하는 쪽에도 해당한다. 사실 우리는 무차별한 행동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그냥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무차별 행동은 설명되어야 할 사실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차별 개념이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간행동학 또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포기한 선택지’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녹차보다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설명 방법은, 어떤 행동을 목적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졸음을 깨우기 위하여 커피를 마신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현실 세계의 행동, 즉 철수가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그 행동과 관계가 있는 다른 어떤 것, 즉 ‘포기한 선택지’ 또는 커피를 마시는 ‘목적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무차별을 전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그 전제에서 이미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없앤다는 점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행동이라는 가시적인 현상을 다른 ‘관측 가능한’(observable) 현상 또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다른 관측 가능한 현상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조건들이다. 이 경우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현상이란 ‘욕구-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전

21) Rothbard(1993), 265쪽, 267쪽 인용.

학파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이론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욕구-만족’의 일종인 무차별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경우를 자세히 검토해본다. A라는 사람이 사과를 먹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인간행동학은 A가 건강을 위해 사과를 먹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또는 A가 사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했을 행동, 예를 들어 배를 먹기로 한 결정으로 사과를 먹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 소비자인 A는 사과와 배에 대해 무차별하기 때문에 인간행동학에서와 같은 설명은 불가능하다. A가 사과를 선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욕구-만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신고전학파의 방법의 문제점이다. 요약하면, 무차별을 전제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제’에서 이미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없애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무차별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 함께 소비자 A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해보자. A가 자신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에 무차별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주문할 음식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 때 A가 친구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자신이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정말로 두 음식에 대하여 무차별하기 때문에 친구가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는 두 가지 음식보다 더 저렴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두 메뉴에 대한 무차별로 제3의 음식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혼자 식당에 온 경우에 그런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A는 두 음식에 대하여 무차별하지만 중국에는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는 행동이 우리가 ‘설명해야 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을 Hülsmann(1999)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요컨대, 내적 성찰에 의해 무차별로 알고 있는 그 무차별은 설명되어야 할 사실(a fact to be explained)이다. 우리가 주장했듯이 무차별 그 자체로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해도 설명할 수도 없다.”<sup>22)</sup>

Rothbard(1997a)는 ‘현시 선호 원리’ (principle of demonstrated preference)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효용이론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원리이다. 행동하는 인간의 선호는 행동

22) Hülsmann(1999) 8쪽 인용.

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 즉 행동하는 인간의 선호는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지 않고는 그의 선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라스바드가 제시한 현시 선호 원리이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의도나 목적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하여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호를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행동이 선호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Hülsmann(199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컨대, 실제의 인간 행동은 선호들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sup>23)</sup> 라스바드는 현시 선호 원리를 기초로 복지 이론(welfare theory)을 구축했다. 왜냐하면 효용은 대인 간의 비교(interpersonal comparison)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효용(utility) 또는 만족은 주관적인(subjective)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효용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나 별다른 의문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기초로 한 응용에서 두 경제학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신고전학파는 그 점을 기초로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작성하고, 미분(differentiation) 등을 하며, 그것들을 이용하여 경제 이론을 유도한다. 비록 암묵적이지만 효용을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효용 또는 만족은 주관적인 것이고 순위(rank)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함수, 미분 등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효용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 만이다. 그러므로 효용의 측정 가능성을 기초로 세워진 주류경제학의 이론들 또는 응용들은 모두 틀린 것이다.

효용 개념을 응용한 것이면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균형에서 재화들 간의 한계효용의 비율은 그 재화들의 가격들의 비율과 같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 이론을 부정한다. 앞에서 서술한 이론을 두 재화만의 관계로 나타내면

23) Hülsmann(1999) 14쪽 인용.



‘ $M_1 / M_2 = P_1 / P_2$ ’ 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신고전학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등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식이 왜 틀린가를 자세히 보기로 한다.

먼저 한계효용 또는 효용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효용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용은 ‘가감승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여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도 재화의 가격과 재화의 효용은 다른 종류의 사물이다. 다른 종류의 사물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효용과 가격은 차원(dimension)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화들의 가격들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A라는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오로지 3,000원이라는 것이 아니다. A라는 재화를 커피라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커피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한다면 커피의 가격은 정확하게는 ‘3,000원/커피 한 잔’이다. 다른 재화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녹차의 가격이 2,000원이라면 녹차의 가격은 정확하게는 ‘2,000원/녹차 한 잔’이다. 커피와 녹차의 가격의 비율은 이제 ‘두 잔의 커피/세 잔의 녹차’가 된다. 이러한 비율이 지닌 문제는 서로 단위가 다른 재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두 잔의 커피를 세 잔의 녹차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동일한 단위를 사용할 때만이 비율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균형에서 각종 재화의 한계효용의 비율이 그 재화들의 가격들의 비율과 같다.”라는 이론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틀린 이론을 기초로 한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도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신고전학파는 무차별 곡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곡선을 연속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수학적 연속성(mathematical continuity)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재화나 상품의 단위는 불연속적(discrete)이다. 재화나 상품을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라는 재화를 생각해 보자. 구두는 한 켤레, 두 켤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구두 한 켤레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구두의 경우에 한 짝 이하로 나눌 수는 더욱 없다. 그러므로 무차별 곡선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것은 비실재적이고 의미가 없다.

## 5. 인간 행동과 불확실성

불확실성(uncertainty)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두 학파는 견해를 달리한다. Mises(1996)는 인간의 행동은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불확실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인간이 미래를 안다면 선택과 행동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Mises(1996)는 그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의지도 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자동기계장치(automaton)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다른 한편, 행동은 ‘미지의 미래’ (unknown future)를 대비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항상 ‘투기’ (speculation)이다. 왜냐하면 투기란 정의상 불확실성 하에서 내리는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언제나 투기자이다. 오늘날 투기자라는 개념은 상업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어 사용됨으로써 투기가 발생하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원인을 찾아내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투기자라는 개념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상업 세계에서 수익률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하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그 지식의 서술은 확률적이다. 미제스에 의하면 확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급간 확률’ (class probability)과 ‘사례별 확률’ (case probability)이 그것이다. 급간확률은 ‘빈도확률’ (frequency probability), 사례별 확률은 인간 행동학에 있어서의 ‘특정한 이해’ 라고 부를 수 있다. 급간 확률의 응용 분야는 기계적 인과성이 지배하는 자연과학 분야이다. 사례별 확률의 응용 분야는 목적론이 지배하는 인간행동 과학의 분야이다. 사례별 확률은 빈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서 ‘수량화 불가능한 위험’ (non-quantifiable risk)을 다루는 것이다.

급간 확률은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의 전체 집합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 집합에 속한 단일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0장의 복권표가 있고 그 중 5장이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 우리는 전체 복권표의 당첨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각 개별 복권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 때 전체 복권표의 당첨 확률이 급간 확률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급간 확률은 자연과학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더 이상 다루지

24) Mises(1996), 105쪽 참조.

않는다.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사건 또는 사고의 확률은 사례별 확률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라는 한 가지 ‘종류’ (class)를 만들 수 있다. 이 종류 개념(class concept)은 여러 가지 추론에는 유용하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헌법의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묶어서 한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case)로서 개별적이고, 고유하며,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는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종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별 확률은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1997년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이자 과거의 사건이다. 이 사례를 다루는 방법은 역사학의 ‘특정한 이해’ (specific understanding)라는 원리이다. 특정한 이해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해라는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원리이다. 역사가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에서 세 가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세 가지란 먼저 행위자들의 동기, 목적, 의도 등이고, 그 다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를 지칭한다.

미래의 대통령 선거 중의 하나, 예를 들어 2017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미래의 사건이다. 이때도 우리는 역사학의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이때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수량화가 불가능한 무지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Caplan(1999)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런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25)</sup>

문제는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 또는 사례별 확률의 존재, 다시 말해 ‘수량화가 불가능한 종류의 무지’ (non-quantifiable type of ignorance)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Mises(2007)는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명이 재삼, 재사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하게 만든다는 점을 주장한다. 물론 아이디어를 발명한 것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한 환경에서 말이다. 발명가의 존재는 인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규칙성을 확립하는 것을 방해한다.<sup>26)</sup> 이 때 미래는 언제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무지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Rothbard(1997a, 1-6장), Hoppe(1989, 1993, 제7장) 등도 다른 각도 또는

25) Caplan(1999), 832쪽 참조.

26) 이때 발명가를 재화의 발명가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발명가란 아이디어의 발명가를 지칭한다.

관점에서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주장했다. 이 점이 수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고전 학파와 다른 것이다.<sup>27)</sup>

이제 Hülsmann(1999, p. 13)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컨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확률적 법칙들은 없다. 그 결과 어떤 인간도 그의 모든 결정을 확률적 직관들에 기초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그는 확률적 모델들에서 과거 사건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델들은 그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문제, 즉 미래라는 독특한 배열을 예상하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모델화는 또한 인간의 선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

## 6. 논쟁의 윤리 대 파레토 최적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정부 정책의 결과가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신고전학파는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 또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문제는 두 개념의 전제 조건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 결과 효용의 대인 간 비교(interpersonal utility comparison)도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othbard(1982)는 재산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개념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Hoppe(1989, 1993)는 지적하고 ‘논쟁의 윤리’ (argumentation ethics)라는 발전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sup>28)</sup> 논쟁의 윤리란 사적 재산만이 정당화될 수 있고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반박하는(self-refuting) 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Hoppe는 모든 사회적 협동에는 개인의 ‘자기 소유권’ (self-ownership)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합의하고 있음을 ‘전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에게 명령을 내릴 때 노예만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면

27) 신고전학파의 주장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Knight(1922)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28) Hoppe(1989)는 제7장, Hoppe(1993)은 제2부와 부록을 참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인, 도둑질, 사기 등도 모순 없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인, 도둑질, 사기 등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논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권의 원리를 전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논쟁의 윤리는 다른 재산, 예를 들어 책상, 의자, 토지 등과 같은 물적 재산(physical asset)에도 물론 적용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현시된 선호의 원리와 논쟁의 윤리 또는 정의 이론(theory of justice)을 기초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복지 이론(Austrian welfare theory) 또는 복지 경제학(welfare economics)이 구축된다. Hoppe는 논쟁의 윤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적 재산의 침해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실질적 전제조건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적 재산의 침해는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정책이 사회에 유익한가를 알기 위하여 효용의 대인 간 비교(interpersonal comparison)를 가정하면 문제는 간단하고 쉬워진다. 그러나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인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만약 그 점을 전제한다면 그 전제를 기초로 한 응용은 모두 무너진다. 다른 한 가지 길은 가치 또는 효용에 의존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Hülsmann(1999)은 Hoppe가 제시한 논쟁의 윤리는 복지 경제학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aplan(1999)은 복지 경제학을 다른 기준, 즉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면 재배분(reallocation)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세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지대 통제가 비효율적이며, 해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경제학을 위한 기준으로 효율성 개념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는 지대를 통제하는 길이 득표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임차인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선거에서 당선을 노리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지대 통제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에게도 자유로운 계약보다는 지대 통제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지대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은 효율성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수단이 효율적인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수단은 언제나 개인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개인들의 목적은 언제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정치 영역에서의 모든 정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간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인한 효용이 비효용보다 크다면 그 정책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불가능하다. 효용은 가감승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다른 한 가지 길은 효용이나 가치 이론(theory of value)에 기초하여 복지 경제학을 구축하는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기초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Rothbard의 현시 선호 원리와 Hoppe의 논쟁의 윤리를 그 기초로 이용할 수 있다. Hülsmann(1999, p. 16)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것[두 번째 길]이 호페의 정의 이론이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다. 현재로서는, 즉 누구도 가치-이론적인(value-theoretic) 접근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에는 이것 [두 번째 길]이 복지경제학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

## 7. 정부실패 대 시장실패<sup>29)</sup>

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자들이 '공공재'(public goods)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시각과 다르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만이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원하고 얼마를 원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어떤 재화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행동, 즉 정부에 의한 재화의 생산 또는 정부에 의한 시장의 간섭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정도의 충분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희생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재화라도 정부의 간섭이 없이 생산 가능하다.

만약 어떤 재화가 재화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그 영향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을 미친다면 그 재화는 공공재가 될 수 있다. 이 때 의도한 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그 재화 본래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외부성’ (externality)이라고 부른다. 외부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29) 이 부록은 전용덕(2002)에서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재화의 주인을 제외한 타인이 그 재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사실상 공공재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재와 사적재화(private goods)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모든 재화가 공공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재화의 상태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순간순간 변하게 된다. 즉 동일한 재화가 어떤 때는 공공재가 되고 어떤 때는 사적재화가 된다.<sup>30)</sup>

신고전학파는 어떤 재화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두 가지 특성이란 ‘소비의 비경합성’ (non-rivalry of consumption)과 ‘다른 사용자의 비배제성’ (non-exclusion of other users)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조건, 소비의 비경합성과 다른 사용자의 비배제성이 제시되었다. 강조해야 할 점은 공공재 이론의 본래의 의도는 공공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유로 정부가 그 재화를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민간이 그 재화를 제공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규범적 주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신고전학파의 공공재 이론이다.<sup>31)</sup>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재는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라는 개념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접근법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접근법은 전적으로 다르다. 아래에서는 두 접근법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 1) 외부효과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설명

인간의 행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한다.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이득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각각 환경오염과 교육을 들고 있다. 외부불경제

30) Hoppe(1993) 참조.

31) 신고전학파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Holcombe(1997) 참조.

와 외부경제를 모두 지칭할 때는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이라고 한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시장에 맡겨보자.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는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행위를 한 경제주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주류경제학자는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오염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오염을 발생하는 경제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염배출세의 부과나 오염배출권의 매매와 같은 제안이 외부불경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다.<sup>32)</sup>

주류경제학자는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행위를 한 경제주체가 모든 이득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개인에게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양의 교육에 투자한다고 주류경제학자는 주장한다. 교육은 분명히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대가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양의 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에 따라 교육의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사적 교육 공급자가 공급하는 교육보다 더 많은 양의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이 공립학교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어왔고 그 결과 공립학교가 증가해 왔다.

한 마디로, 주류경제학은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류경제학은 이런 ‘시장실패’ (market failure)에서 정부의 시장 간섭 또는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다. 문제는 과연 주류경제학의 이런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편의상 다음에서는 외부불경제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 2) 외부불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외부불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대책을 제안하는가? 미제스는 대작 Human Action에서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의 재산을 예로 들어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논

32)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탄소배출권과 같은 것은 잘못 만들어진 권리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점을 설명한다.<sup>33)</sup> 숲과 나무, 바다나 하천에 있어서의 어족자원, 광물질 등은 많은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이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어부들은 그들의 고기잡이 방식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기를 잡는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획 방법이 어족자원 자체를 멸종하게 만들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행동은 국가 또는 공공 소유에서의 동물 사냥, 나무 베기 등에서도 목격된다. 그들에게는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에서의 고기잡이, 동물 사냥, 산림 채취 등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거나 자원의 미래사용에 영향을 주는 손상 등은 그들의 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외부비용’ (external cost)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자신들이 거둬들이지만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어족자원의 경우에 어족의 씨를 말리는 정도로 모든 고기를 잡는다면 나중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족자원을 재식민(repopulation)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 소유의 자산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에 어부는 어족자원의 재식민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원 고갈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어족자원을 잡아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공 소유의 산림에서 나무를 베는 경우에는 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나 재산림화(reforestation)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자연자원 채취로부터의 이득은 자신이 가지고 재식민이나 재산림화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상태 즉,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먼 과거에 넓은 지역이 동물, 어족, 나무 등으로 가득했을 때는 그런 사냥 방법, 어족 채취, 나무 베기 등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로 집중되면서 그런 낭비적인 방법의 자원 채취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점차 인간은 ‘사적 재산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토지에서 목초지, 삼림, 바다와 하천 등으로 재산권 도입 지역을 넓혀갔다. 유럽에서는 이런 과정이 몇 백 년에 걸쳐 일어났다. 즉, 유럽에서는 약탈적인 채취 방법을 포기하고 자원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도입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 그 결과 적어도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지역에서는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일은 없어졌다. 토지, 산, 강 등의 개인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식민과 재산림화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연자원을 적절히 채취했기 때문이었다. 외부불경제가 사라진 것이다.

33) Mises(1996) 참조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달랐다. 이주민이 대량으로 이주하면서 재식민과 재산립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인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남획했다. 그리고 그런 약탈적 방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자연자원의 고갈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외부비용으로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외부비용이란 외부불경제로부터 생겨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농부나 목재 채취업자나 어부들은 이제 외부비용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념적인 요소가 되면서 달라진 환경에 맞게 자연자원 이용 방법을 바꾸는 것을 방해했다.

타인에게 피해 또는 손실을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과 규칙의 일반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피해나 손실과 관련하여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완전하지 않다.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허점 또는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이다. 첫째, 환경오염 물질이 주는 피해나 손실은 그것을 쉽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원리는 그 피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약간의 대기오염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피해가 미미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미제스의 설명에서 보듯이 국가 또는 공공 소유의 재산과 이념적 요소가 책임과 배상의 원리의 적용을 방해한다. 셋째, 공기의 경우처럼 재산권을 개인에게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의 지식 체계가 문제다. 넷째, 법과 규칙의 성문화 작업(wording)의 어려움이 법과 규칙을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다. 다섯째, 과거에 국가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부불경제를 장려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화 초기에 많은 나라에서 철도나 공장의 주인들은 그들의 활동으로 발생한 매연, 소음, 수질 오염 등이 철로나 공장의 인근 주민, 피고용자, 또는 행인 등의 재산과 건강에 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이 산업화의 진전과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아이디어는 당시의 법과 규칙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과 규칙의 허점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나 다른 법과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과 규칙이 결점을 가지게 된 역사적 측면이다. 산업 혁명 직후에는 기업들 또는 자산 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그런 기업들의 책임과 배상을 실질적으로 줄여(abate) 주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근래에는 가난한 사람, 임금 생활자, 농민들을 부유한 기업가나

자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가나 자본가의 책임과 배상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책임과 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경우라도 입법자들이 법과 규칙의 허점을 개선하거나 필요하다면 결점 없는 새로운 법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상태는 상당 부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입법자들이 이익집단의 이익을 돌보는 법을 무더기로 쏟아냄으로써 상태는 과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과거보다 더 많은 허점 또는 결점을 안고 있다.

법과 규칙이 허점을 지니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행위자들 또는 경제주체들은 그런 상태의 법과 규칙을 외부조건 또는 여건(datum)으로 간주한다. 즉 행위자들은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책임지는 것 또는 타인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 타인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부 경제주체는 법과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 3)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만약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이라면 개인이나 기업의 계산은 명백히 틀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사람을 속이게 된다. 예를 들어,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이 그 매연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장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는 확실히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즉 주류경제학자가 주장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그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의 외부불경제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일치한다.

그러나 외부불경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명백히 다르다. 주류경제학은 외부불경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외부불경제가 어떤 현상인가만을 설명할 뿐이다. 당연히 대책은 원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임의적이고 즉흥적

이다. 외부불경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대책이 비용—편익에 기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간접적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그런 법과 규칙을 허용한 사람들의 지식 체계, 언어의 한계, 국가나 정부의 의도, 현재의 책임 규명 체제의 한계,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의 존재, 이익집단의 이해 등이다.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은 외부불경제의 직접적 원인 즉, 외부불경제를 발생케 한 허점 또는 결점 있는 법과 규칙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현재는 법과 규칙에 관한 제정, 집행, 사법의 권한이 모두 정부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외부불경제가 시장실패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이제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본다. 첫째, 재산권제도를 전적으로 사유권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외부불경제를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둘째, 피해와 손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당사자 간에 완전하게 하도록 현재의 법과 규칙의 허점이나 예외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재산권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원칙이 완전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허점을 악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규칙의 허점이나 예외 조항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셋째,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외부불경제를 시장실패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지식이 존재하는 한 잘못된 제도나 정책의 결과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4) 외부경제<sup>34)</sup>

어떤 행위자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준다면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대안이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매우 큰 경우이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어떤 행동이나 계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 미제스는 철도회사의 예를 제시한다. 산업화의 초기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철로를 건설해야 하는 경우에 철도회사가 산사태를

34) 외부경제에 대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외부경제가 외부불경제의 단순한 정반대 또는 역(逆)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경제는 외부불경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외부경제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영역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외부경제를 마치 외부불경제의 역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방지하는 차단막을 건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로 차단막 인근 주민은 엄청난 이득을 본다. 매년 발생하던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회사는 차단막 설치가 인근 주민에게 이득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회사는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차단막의 규모를 줄여서 산사태가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차단막을 설치하지도 않는다. 철도회사는 차단막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한다. 철도회사는 타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누린다는 점을 차단막을 설치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경제가 철도회사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주류경제학자의 지적처럼 과소 생산의 우려는 전혀 없다.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은 어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누구도 혼자서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비용을 분담해야만 한다.

두 가지 대안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외부경제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인간행동’에서 주류경제학과 같은 가짜 경제학 문헌들이 외부경제를 전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외부경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미제스의 설명을 빌려 지적해 본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이윤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C사업’이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은 기업가들의 계산이 C사업으로부터 생겨나는 외부경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C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자는 그런 외부경제는 적어도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이득을 주고 그 결과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C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만큼 손실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은 나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직접 공기업을 운영하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나 기업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류경제학자는 제안한다.

정부가 외부경제를 이유로 C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정부는 C사업에서 외부경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금의 형태로 국민의 소득에서 온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무엇을 생산하는 조직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은 그 사업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세금의 납부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욕망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즉 정부가 많이 소비하면 국민은 그 만큼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면 그 만큼 민간 부문에서는 같은 크기이면서 이윤이 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민간에서 실현되지 못한 사업은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것이다. C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업에서 생산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사부문(private sector)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C사업으로 생산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윤이 날 것이 예상되어 정부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 영역에서 시행했을 것이다. 이윤 기회를 찾는 기업가가 그런 기회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세금을 징수하여 C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만족을 뺏고 더 작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C사업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다.

한 마디로,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경제가 최선이다. 만약 정부가 간섭한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보다 효용 또는 만족은 명백히 감소한다. 외부경제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영역은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예로 든 교육, 철도, 교량, 항만, 도로, 공항, 하천, 조림, 발전, 물 공급과 상하수도 유지, 통신, 우편, 화폐의 발행과 은행제도, 예금보험, 연금과 건강보험, 방역체계의 유지, 치안, 국방, 사법 체계의 유지, 식량 안보용 농업, 복지, 그린벨트 유지, 공용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 8. 상품 화폐 대 불환 지폐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에서도 두 학파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의 기원을 고찰해 볼 때 상품 화폐(commodity money) 또는 상품 화폐에 기초를 둔 태환 지폐만이 시장에서 발달한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상품 화폐 또는 상품 화폐를 기초를 둔 태환 지폐만이 가장 문제가 적은 화폐라고 주장한다.<sup>35)</sup> 지폐는 정부가 그 발행을 독점한 것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불환 지폐가 상품 화폐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화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불환 지폐는 발행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다른 비용이란 만성적이고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변동에 따르는 경제위기, 소득 재분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지폐의 사용은 국제 관계에서도 환율 전쟁을 포함한 화폐 전쟁(currency war), 국제 분업의 파괴와 빈곤, 문명의 몰락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한 마디로, 지폐는 화폐 국가주의(monetary nationalism)에서 화폐 제국주의(monetary imperialism)로 나아가게 한다.<sup>36)</sup> 그러나 상품 화폐는 발행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은 적지 않지만 앞에서 열거한 다른 부작용은 대부분 없다. 즉 상품 화폐는 지폐의 핵심적 문제점, 즉 정부에 의한 과다 발행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화폐이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학파는 100% 지급 준비 은행업(100% reserve banking)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고전학파는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fractional reserve banking)을 허용한다.<sup>37)</sup> 그리고 두 학파는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입장을 달리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시장을, 신고전학파는 필요시에 정부의 간섭을 옹호한다.

화폐와 금융의 자유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고전학파가 제안하는 화폐

35)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80), 국내 문헌으로는 전용덕(2009) 등이 있다.

36) Gertchev(2013), 참조.

37) 예금과 관련한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두 학파는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예금 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제도와 금융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정부의 독점이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경제위기의 반복,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을 경험하고 있다. 1920-30년대의 대공황<sup>38)</sup>,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로 지칭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 조합의 위기, 1993년 일본의 위기,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199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남미 제국의 위기,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위기 등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이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9. 실험주의 대 실증주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있어서 두 학파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실증 분석과 이론과의 관계에서 두 학파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험적인 사실’ (empirical fact)로 경제 이론을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제 이론은 ‘실험적’ 이기 때문이다.<sup>39)</sup>

경제 이론이 왜 실험적인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 목적은 행동보다 언제나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선행한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포기한 선택지도 행동보다는 언제나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선행한다. 그러므로 경제 이론은 실험적이다. 경제 이론이 실험적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나쁜 이론은 좋은 이론에 의해서만 논박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사실로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론 또는 이론들은 행동의 공리와 보조 전제에 의해 유도된다. 우리는 공리로부터 유도된 이론 또는 이론들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증적인 사실 (observable facts)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 또는 자료는 이론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고전학파는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론의 예측력을 이론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좀 더 넓게는 경험적 사실로 이론을 증명하고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물리주의는 자연과학에 적합한 방법론

38) 1920-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분석은 Rothbard(1975)가 대표적이다.

39) 여기에서의 실험주의는 독일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실험주의와 다른 것이다.



이다. 왜냐하면 범물리주의는 돌, 사과 등과 같은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은 동일한 외부 사건에 대해 때로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외부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다. 자연에서 물체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물체와 물체의 관계에는 규칙성이 있다고 전제된다. 그리고 그것은 두 물체 간의 인과 관계를 말한다. 자연의 세계에서 규칙성이 없는 관계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자연에서의 인과 관계와 같은 그런 인과 관계는 없다. 그러므로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는 부적절하다.

인간의 행동도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가 있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의 목적이 원인이고 행동의 결과가 원인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자연 세계의 인과 관계와 다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과론에 기초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으로는 부적절하다.

## 10. 기타 개념 또는 이론

첫째, 두 학파는 주권(sovcreignty)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개인 자기 주권' (individual self-sovereignty) 개념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신체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장에는 '소비자 주권' 도 있지만 '생산자 주권' 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에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에 공급자 주권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기보다는 개인 자기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소비자 주권만을 인정한다. 신고전학파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개념의 문제점은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도 자신들의 신체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가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차이는 반트러스트법, 독점법, 소비자보호법 등과 그 정책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소비자주권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주제를 따로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자세한 내용은 Rothbard(1993)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반트러스트법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분석은 Armentano(1999) 등이 있다.

둘째, 경제를 움직여가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신고전 학파의 경제학에는 없다. 그 결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는 기업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기업은 존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간단히 가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가는 위험을 떠맡는 기능, 자본가 기능, 재산의 소유자로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 기능 등을 한다.<sup>40)</sup> 그 결과 기업가는 시장과 경제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업가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는 빠져있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 가정도 문제가 있음을 앞에서 지적했다. 시장경제에서 없어서 안 되는 기업가라는 주요 개념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된 원인 중의 한 가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개인적인 독특함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Rothbard(2007)는 주장한다.<sup>41)</sup> 왜냐하면 개별 기업가는 확실히 독특하기 때문이다.

셋째, 독점의 정의와 카르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두 학파는 전혀 다르다.<sup>42)</sup> 오스트리아 학파는 독점을 “정부가 생산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수여한 특권 또는 특혜”로 정의한다. 그 말은 생산 영역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둔 ‘진입장벽’ 이야말로 독점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어떤 산업에 하나의 생산자만 있는 경우를 독점으로 정의하는 신고전학파를 부정하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도 독점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만들어둔 진입장벽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일인지 주류경제학은 이 정의를 던져버리게 되었다.

독점과 관련된 개념으로 카르텔(cartels)이라는 것이 있다. 주류경제학은 카르텔을 ‘담합’ 행위로 비난한다.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독점 기업이 되고 그 결과 소비자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발적 행위에 의한 생산자들 간의 카르텔은 협력 행위로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행위이지 감소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에 말이다. 정부의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 즉 자유시장인 경우에 기업가들이 시장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에 ‘사후

40) 기업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lerno(2008), 전용덕(2010a)를 참조.

41) Rothbard(2007), p. xiv 참조.

42) 두 학파는 경쟁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제시한다. 그 결과 산업조직론과 반트러스트법과 관련하여 두 학파는 크게 다르다. 여기에서는 이 점은 생략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경쟁과 독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thbard(1993), 제10장을 참조.

적으로' (ex post)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이 때 사후적이라는 것은 기업이 설립되고 난 뒤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카르텔을 허가해주는 경우의 카르텔이야말로 독점으로서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에서 카르텔은 담합이 아니라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의 하나로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카르텔에 대한 관점에 따라 반트러스트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미국 반트러스트법을 다룬 저술로는 Armentano (1999)가 있다.

#### IV. 결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점과 이론의 응용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두 학파는 무엇보다도 정치 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행동 공리, 이론의 전제 등을 포함하여 경제 이론들, 방법론, 인식론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두 학파의 정치 철학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을 제외한 법학, 정치 체제 등에 있어서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상 이 점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좋은 경제학 또는 좋은 경제이론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정책의 형성을 통해 인간과 국가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문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의 선택에 있어서 현명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교한 것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해당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이 의존하고 있는 공리, 전제, 기초 등이 얼마나 실재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실재적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성과 합리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사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실증주의를 경제이론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제 이 논문의 결론으로 Hülsmann(1999, p. 18)의 주장을 인용하고자 한다. “진실은 경제 과학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려면, 실재주의적 분석(realist analysis)이라는 위대한 전통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실재주의적 분석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이 100년 이상 발전시키기를 조력했던 것이고 그들이 현재는 그 분석의 유일한 대표자들인 것이다.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 추종자들(Einsteinians)이어야 했던 것처럼 미래의 경제학자들은 미세스 추종자들(Misesians)이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용덕. 2002. 「축구, 외부성, 그리고 정부실패」. 전용덕 엮음. 『월드컵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 자유기업원.
- \_\_\_\_\_. 2006. 「인간 행동의 합목적성과 경제 교육의 필요성: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응용하여」. 자유경제스쿨 홈페이지(7월9일자).
- \_\_\_\_\_. 2009.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와 금융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2010. 「기업과 기업가 정신: 이해와 오해」.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10-09.
- Armentano, Dominick T. 1999. *Antitrust: The Case for Repeal*. 2nd e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Block, Walter. 1990. "The DMVP-MVP Controversy: A Not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4: 208-14.
- Bohm-Bawerk, Eugen von. 1959. *Capital and Interest*. South Holland, Ill.: Libertarian Press.
- Campan, Gael J. 1999. "Does Justice Qualify as an Economic Good?: A Bohm-Bawerkian Perspectiv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2): 21-33.
- Caplan, Bryan. 1999. "The Austrian Search for Realistic Foundations". *Southern Economic Journal*. 65(4): 823-38.
- Cordato, Roy. 1992. *Welfare Economics and Externalities in an Open-Ended Universe: A Modern Austrian Alternativ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iLorenzo, Thomas J. 1988. "Competition and Political Entrepreneurship: Austrian Insights into Public-Choice Theory".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59-72.
- Friedman, Milton. 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3.
- Gertchev, Nikolay. 2013. "From Monetary Nationalism to Monetary Imperialism: Fractional Reserve Banking and Inter-Government

-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6(2): 109-134.
- Hayek, F. A. 1931. *Prices and Production*. London: Routledge.
- \_\_\_\_\_. 1937. *Monetary Nationalism International Stability*. London: Longmans.
- \_\_\_\_\_. 1979.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2nd ed. Indianapolis, Ind.: Liberty Fund.
- Herbener, Jeffrey M. 1992.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Desocialization".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1): 79-93.
- \_\_\_\_\_. 1997. "The Pareto Rule and Welfare Economic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1): 79-93.
- Hoppe, Hans-Hermann. 1989. *A Theory of Capitalism and Socialism*. Boston: Kluwer.
- \_\_\_\_\_. 1991. "De-Socialization in a United Germany".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5(2): 77-104.
- \_\_\_\_\_. 1993.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Boston: Kluwer.
- \_\_\_\_\_. 1994. "How is Fiat Money Possible?-or The Devolution of Money and Credit."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7(2): 75-90.
- \_\_\_\_\_. 2007. *Economic Science and the Austrian Metho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Holcombe, Randall G. 1997. "A Theory of the Theory of Public Good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0(1): 1-22.
- Huerta de Soto, Jesus. 2006. *Mos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translated by Melinda A. Stroup.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12. "Book Review of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5(4): 469-479.
- Hummel, Jeffrey. 1990. "National Goods vs. Public Goods: Defense, Disarmament and Free Rider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4: 88-122.
- Hülsmann, Jorg Guido. 1999. "Economic Science and Neoclassicism".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4): 3-20.
- \_\_\_\_\_. 2000. "A Realist Approach Equilibrium Analysis". *Quarterly*

-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3(4): 3-51.
- \_\_\_\_\_. 2003a. "Introduction". In Mises, Ludwig von,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3b. "Facts and Counterfactuals in Economic Law".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7(1): 57-102.
- \_\_\_\_\_. 2007.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 Auburn, Ala.: Mises Institute.
- Kirzner, Israel M. 1966. *An Essay on Capital*. New York: Augustus Kelley.
- \_\_\_\_\_.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The Meaning of Market Process*. London: Routledge.
- Klein, Peter. 1996. "Economic Calculation and the Limits of Organization".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3-28.
- Knight, Frank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Chicago: Hart, Schaffner, and Marx.
- Machaj, Mateusz. 2012. "In Counterfactuals We're All Dead".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5(4): 443-455.
- Menger, Carl. 1950. *Principles of Economics*. Glencoe, Ill.: Free Press.
- Mises, Ludwig von. 1980. *Theory of Money and Credit*. Indianapolis: Liberty Fund.
- 루드비히 폰 미제스. 2011. 『화폐와 신용의 이론(상), (하)』. 김이석 역.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1990. *Money, Method, and the Market Process*. Norwell, Mass.: Kluwer.
- \_\_\_\_\_. 1996. *Human Action*. San Francisco, Cal.: Fox & Wilkes. 민경국 박종운 역. 2011. 『인간행동 I, II, III』. 지식을 만드는 지식.
- \_\_\_\_\_. 2003.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6.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 \_\_\_\_\_. 2007. *Theory and Histor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10.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Indianapolis: Liberty Press.

- Reisman, George. 1998. *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TJS Books. Laguna Hills, California.
- Rothbard, Murray N. 1975. *America's Great Depression*. Kansas: Sheed and Ward, Inc.
- \_\_\_\_\_. 1992. *The Present State of Austrian Economics*.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_\_\_\_\_. 1993. *Man, Economy and State*. 3rd ed. Auburn, Ala.: Mises Institute. 머레이 N. 라스바드. 2006.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 \_\_\_\_\_. 1997a. *The Logic of Action One: Method, Money, and the Austrian School*. Cheltenham, U. K.: Edward Elgar.
- \_\_\_\_\_. 1997b. *The Logic of Action Two: Applications and Criticism from the Austrian School*. Cheltenham, U. K.: Edward Elgar.
- \_\_\_\_\_. 2002. *The Ethics of Libert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5.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7. "Preface". In Mises, Ludwig von. *Theory and Histor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alerno, Joseph T. 1990. "Why a Socialist Economy is Impossible". In Mises, Ludwig von. 1990.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Auburn: Mises Institute. 51-71.
- \_\_\_\_\_. 1999. "The Place of Mises's Human Actionj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Economic Thought".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1): 35-65.
- \_\_\_\_\_. 2005. "Introduction". in Rothbard, Murray N.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8.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1: 188-207.
- \_\_\_\_\_. 2010. *Money: Sound and Unsoun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alin, Pascal. 1996a. "Cartels as Efficient Productive Structure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29-42.



- \_\_\_\_\_. 1996b. "The Myth of the Income Effect".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1): 95-108.
- Schulak, Eugen Maria and Herbert Unterköfler. 2011.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A History of Its Ideas, Ambassadors, and Institutions*. Translated by Arlene Oost-Zinner.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elgin, George. 1988a. "Praxeology and Understanding".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19-58.
- \_\_\_\_\_. 1988b. *The Theory of Free Banking*.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 \_\_\_\_\_. 1996. *Bank Deregulation and Monetary Order*. London: Routledge.
- Sennholz, Hans. 1987. *Debts and Deficits*. Spring Mills, Penn.: Libertarian Press.
- Thornton, Mark. 1991. *The Economics of Prohibitio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White, Lawrence H. 1989. *Competition and Curren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

## Austrian Economics vs. Neoclassical Economics

Yoong-Deok Jeon  
(Daegu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e comparison between Austrian economics and Neoclassical economics. Two economics are essentially different because the former is based on praxeological analysis and the latter psychological one. In addition, basic postulates, methodology, epistemology, and theories of two economics are also totally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shows that Austrian economics is better than Neoclassical economics in terms of realistic postulates, methodology, epistemology, and thus economic theories.

**Key words:** Austrian Economics, Neoclassical Economics, Methodology, Realistic Postulates, Economic Theories, Epistemology.

【2013. 11. 4. 접수】 【2014. 2. 27. 수정】 【2014. 2. 28. 게재확정】